

전북대-원자력연구원 약대 유치 '맞손'

프로그램 구성·로드맵 구축 학생 실습 교육·인적 교류도

약학대학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약대 설립 후 교육과 연구 분야 협력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소장 정병업)와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13일 오전 전북대 본부 회의실에서 김동원 총장과 채한정 약학대학유치추진단장, 정병업 첨단방사선연구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북대 약학대학 설립을 위해 관련 분야 교과목을 개발하고, 연구와 실무·실습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는 전북대 약학대학 설립을 위한 로드맵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 여론 조성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전북대가 약학대학을 유치할 경우 학생 실무와 실습 교육을 위한 공간과 행정을 지원하고, 교육 및 연구 관련 시설 공동 사용과 인적 교류에도 뜻을 같이 했다.

김동원 총장은 "오랜 숙원인 약학대학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대학에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의 지원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관련 분야 많은 연구소 및 기관 등과 공교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병업 소장은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약학대학 설립을 위한 로드맵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 여론 조성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13일 오전 전북대 본부 회의실에서 김동원 총장과 채한정 약학대학유치추진단장, 정병업 첨단방사선연구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여성의 경쟁력 높이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밑거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중점 추진 사업 발표 성 평등 사회 기반 마련·경력단절 여성 지원 확대 등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이운애)는 13일 3층 세미나실에서 2019년 중점 추진 사업 및 계획을 발표하기 위한 '상반기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센터는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2019년 중점 추진할 6대 과제로 사회적 가치 실현 강화, 윤리경영 기반 마련, 여성 미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여성인재 아카데미, 제8회 젠더문화축제,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경력단절에 방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공공가치 실현
센터는 지역민을 위한 공공기관을 명심하고 공공가치 창출과 책임경영 실현을 위해 일자리 등 9개 분야 사

회적 가치 실현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인권경영 추진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반기에 인권경영선언문을 공표할 예정이다.

◇성 평등 사회 기반 마련
센터는 뿌리 깊은 성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평등사회 기반 마련을 위하여 여성인재 아카데미와 젠더문화축제 사업을 강화한다. 특히, 여성인재아카데미에서는 기존의 민간·공공기업 중간관리자, 지역여성리더 대상에서 '청년여성 우리베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8년째 개최되는 젠더문화축제에서는 '청소년 토크'와 '5월의 젠더극장'을 신설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경력단절 여성 지원 확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로부터 2009년과 2010년에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전북광역새일지원분부를 각각 지정받으면서 지난 4년간 연속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평가 A등급을 달성하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연간 4,400여명의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을 연계하고 있는 센터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중시되는 소프트웨어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3월부터 7개월 간 코딩·드론지도사, 유아감성지도사, 웹콘텐츠마스터 등 정보통신 기술과 여성의 소통능력을 강조하는

직업교육훈련을 180여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재직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노무 상담,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확대하고, 새일센터 인턴사업 참여 대상을 1인 기업까지 폭을 넓혔다.

이운애 센터장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 문화를 해소하고, 여성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경력단절, 남녀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성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업도 확대하면서,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전북을 만드는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하나되는 교육공동체 '익산맑은샘유치원'

단설유치원으로 새롭게 문 열어

1999년 공립 단설 '이리유치원'이 개원한 이후 20년만에 익산지역 주민들의 소망을 담아 두 번째 단설유치원인 '익산맑은샘유치원'이 지난 2019년 3월 1일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익산맑은샘유치원은 '비주알 고추알 놀이데이'를 특색교육으로 놀이와 체험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유아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워갈 것이며 '[가치]만드는 우리학교' 혁신교육특구 사업 운영을 통해 유아, 학부모, 교사가 하나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또한 만족도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과 유아들의 안전 등·하원을 위해 총 3대의 통학차량이 익산시 전 지역을 운행하며, 맞벌이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후 과정이 오후 6시 30분까지 연장 운영되고 있다.

익산맑은샘유치원 박현진 원장은 "일반학교와 특수학교의 1:1 인근 배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등의 시설적 장점을 적극 활용해 유아특수 통합교육의 센터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학생들이 전주 3·13 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 학생회관 앞에 모여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만세삼창을 부르며 독립운동을 기념했다.

독립의 함성에서 평화와 통일로

전주대, 3·13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플래시몹 진행

"또래 친구들에게 역사와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과 동시에 우리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전주대학교 학생들이 '전주 3·13 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학생회관 앞에 모였다.

이들은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만세삼창을 부르기도 하며 100년 전 이날, 조국을 위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치던 독립운동가들을 기렸다.

"독립의 함성에서 평화와 통일로 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오로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진행됐다.

특히, 전북지역대학생겨레하나 학생들이 행사를 기획하며, 3·13 만세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조국 독립의 열망과 기쁨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해 평화 통일로 나가는 메시지를 포함했다.

단연, 이번 행사의 꽃은 참여한

학생들이 함께 준비한 3·13 만세운동 플래시몹이었다. '가자 통일로'라는 노래에 맞춰 수 십 명의 학생들이 민족의 우렁찬 기개와 통일에 대한 희망찬 기대감을 울려 퍼졌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전주대 임정주 학생(영화방송학과 4학년)은 "갑자기 진행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줘서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라며, "대학생들이 학업이나 취업에만 매몰된 것이 아니라 역사와 나라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 3.13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3일, 전주 남문시장에서부터 진행된 전북 최대 규모의 독립만세 운동으로 약 1만 여명의 학생과 종교인을 비롯한 전주 시민이 모여 태극기를 휘둘러고 만세를 외치며 평화 통일로 불구하고 4월 3일까지 이어졌다.

장은성 기자

학생금융지원센터, 흡연예방교육 수행기관 공모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흡연 학생의 금연 실천을 돕기 위해 학생 금융지원센터 운영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내 보건교사가 없거나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학교를 찾아가 흡연예방·금연교육을 할 기관도 공모한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사업수행 기관 모집 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공고했다.

▲학생 금융 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도내 초·중·고 흡연학생 중 금연 지원 및 관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희망학생 350명 내외를 대

상으로 기본과정(10회기/그룹), 심화과정(8회기/개인), 상시과정(5회기/개인)을 통해 금연을 돕게 되며, 금연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에게 최소 3개월간 금연유지 사후관리까지 담당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흡연 학생 442명이 지원해 377명이 프로그램에 이수했으며, 이 가운데 114명(30.2%)이 완전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서는 이날 14일(목)까지 도교육청 8층 건강교육담당(239-3384)에게 제출하면 된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내년 1월까지이며, 사업금액은 1억 3000만원이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내일 맑은전북교육 실무대책반 회의 개최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내일 8층 대회의실에서 오전과 오후 2회에 걸쳐 2019 맑은전북교육 실무대책반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8년도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 평가 결과와 취약요인을 분석·공유하고, 밀도 있는 2019년도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담당자 협의를 통해 부서 및 기관 상호 간 긴밀한 소통과 협조로 정책수립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오전에는 감사관실 담당자를 포함해 도교육청 각 부서 주무 장학관·사무관, 2019년도 부패방지 청렴정책 추진 과제별 부서담당 장학사·주무관 등

60여 명이 참석한다.

오후에는 지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청렴업무 담당 과장, 팀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8년도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분석하며 청렴도 개선 및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수립 방향을 협의한다.

도교육청은 분야별 청렴도 개선계획과 부서별 청렴정책을 공유하고 2019년 청렴도 측정 결과, 개인 청렴도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은성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